

#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 오씨가 인공지는 오마리를 동원해 맛깔나게 풀어 봅니다.



# 문제를 풀수 있는데가 어딜까

생각하다 먼저 철학가를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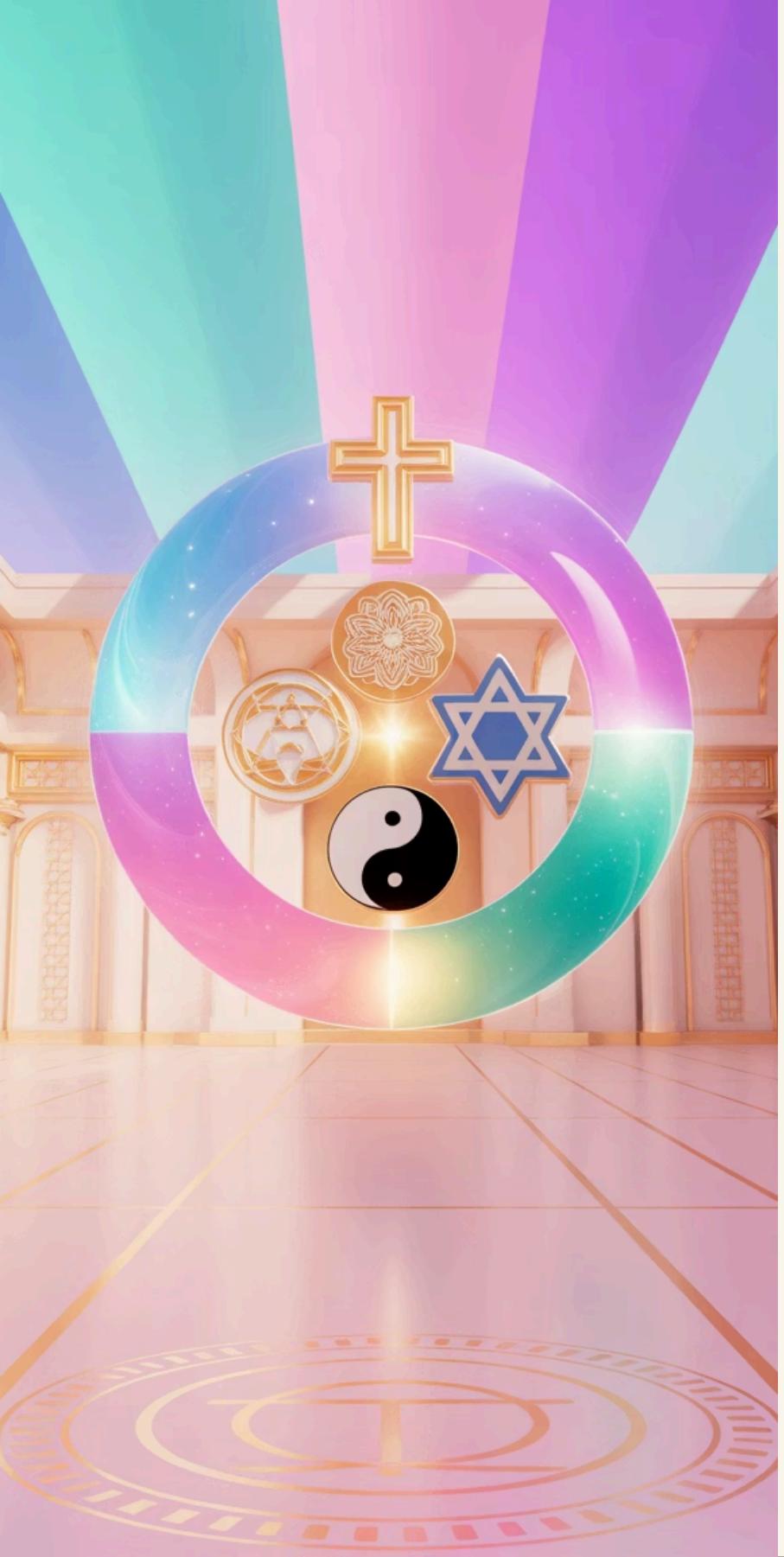
너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am who I am

거짓말이라도 시원하게 했으면 했는데— 나는 who I am 이야

하고 진전이 안보인다. 2000년 넘게.





## 하여 종교로 들어가 봤다

-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때문에 뭔가에 의지하고 믿을려 한다.
- 보통은 보이는 뭔가를 정하고 기도한다, 독수리, 호랭이 곰 등등 , 좀더큰데는 태양신, 천지신명 하며.
- 하나 우주를 창조했다는 ,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죽어서 부활할수도 있다는 간큰 종교가 하나 있다.

# 잠시 과학으로 들어가보자

그리 긴시간은 아녔지만 그런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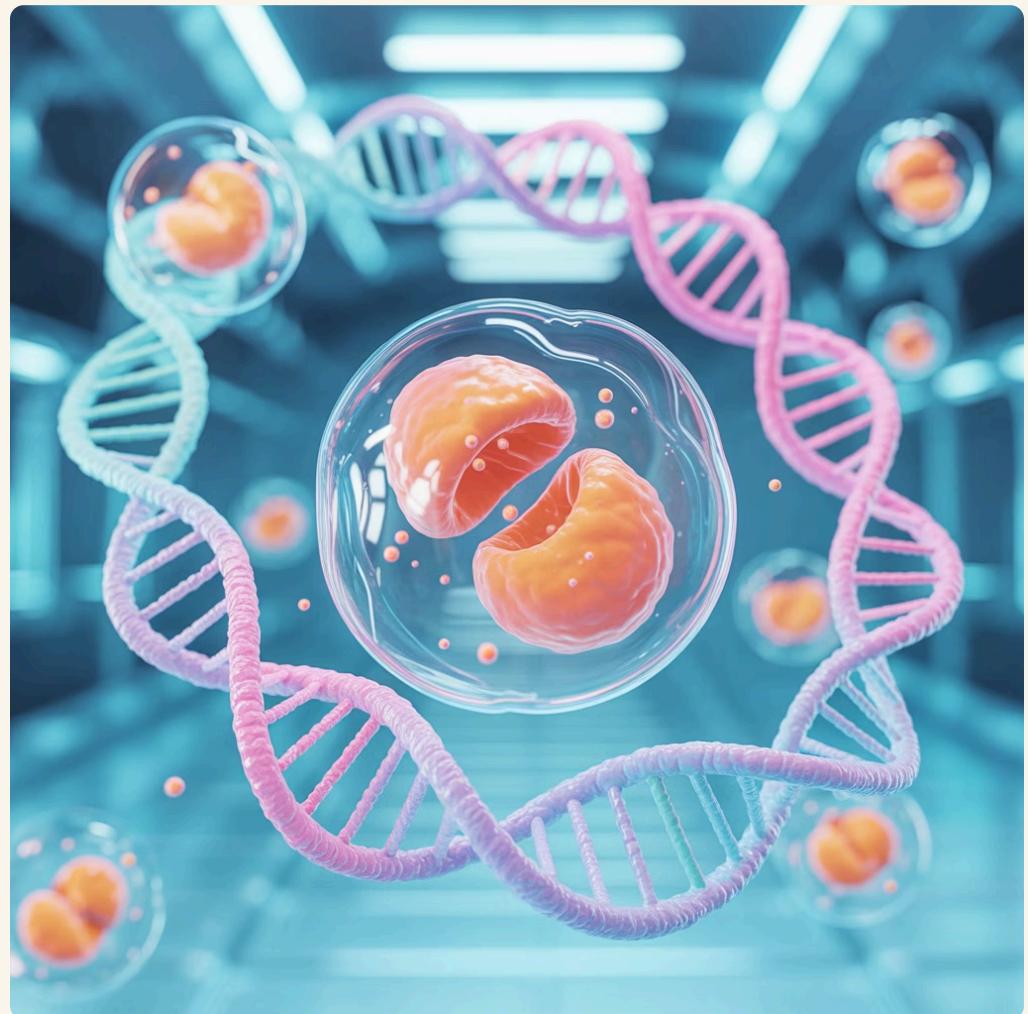
설명이 so far so good 이다.

사람은 부모님의 정자 난자가 만나 한세포로 부터 시작한다.

허나 그세포속에는 엄천난양에 정보를 갖고 있다.

조상들이 배우고 닦은 정보가 녹아 있다.

한세포가 번식하면서 태어나고, 살다 죽는다.



# 과학은 담백질, DNA 조작으로

단세포 생명체도 만들고

DNA를 잘라내고 붙이고 하기시작 했다.

하여 인간의 탄생이 뭐야 하면, 혹시 빅뱅이 일어날때 생명체가 만들어져  
진화해서 사람이 된게 아닌가 츠측만 한다.

허나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 세포에는 문자로 이뤄졌고

더깊이가면 원자 더깊이 가면 무, 공이라 한다.

그공애는 에너지와 파장이 있다는 큰 발견을 했다..





# 에너지와 파장 누가 조정 ?



원건데 그에너지와 파장이 무엇에 조종을 받는지,  
양심은 생각은 잠재 의식은 어디에있는지.



몸 밖의 서버  
혹시 몸밖에 내서버에 저장, 누구에 지시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밀의 문  
하여간 에너지와 파장. 그야 말로 비밀의 의 문이다.  
죽어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안다면 .

# 에너지 파장

세상에는 에너지 파장이 많다. 조만간 동물하고도 대화할날이 .

개보고 잘잤냐, 아침먹었냐. 돼지보고 아침 먹어라 등등

주파수만 마추면 라디오도 듣고 영화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텔레파시도 느끼고



# 결론

나는 누구냐

내조상과 나와 환경이 만든 독특한

에너지와 주파수다.



# 죽은후 나에 독특한 에너지와 주파수가

부활의 주파수와 합류 되던지

아니면 다른 주파수에 맞는 소굴로 가던지 하리라





# 호주에서 Kevin